

01 교회소식

오늘 같이 행복한 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 천국 새 예루살렘 소망으로 충만한 학생주일학교.

02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담긴 섭리

예수님의 옷은 무엇을 의미할까?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겉옷은 벗고 속옷은 찢지 않은 이유.

03 기획특집

믿음으로 응답받으려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살펴본다.

04 간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현숙 권사와 목자의 눈물로 변화된 네팔 찬양 라이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743호 2016년 6월 1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참 행복과 기쁨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천국 소망으로 변화하는 만민의 꿈나무들



만민의 학생들이 온 영의 흐름을 타며 급속히 변화되고 있다.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 스마트폰을 폴더폰으로 바꾸는가 하면, 컴퓨터 게임을 끊고 학업에 집중할 뿐 아니라 예배 태도도 확연히 좋아졌으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달라진 것이다.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이숙 우화 ‘해와 바람’에서 길 가는 사람의 두꺼운 외투를 벗긴 것은 바로 ‘해’였다. 누군가가 보여준 따뜻한 사랑과 희생, 그리고 진솔한 섬김이 학생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믿음과 소망으로 환히 밝혀준 것이다.

평소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학생들이 신앙은 물론, 주 안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기도와 함께 장학금, 구제 등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무엇보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산상기도처로 초대해 주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체험케 하였다.

지난 해 12월 27일, 천국의 아름다움을 조

금이라도 전달해 주고 싶었던 이 목사의 진심을 느낀 학생들은 초대받은 그날로부터 급속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초롱초롱 빛나는 눈으로 예배 시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니 장년 성도들에게까지 은혜가 되었고, 기도생활은 물론 많은 학생이 상반기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 기도회’에 참석하여 작정해 기도하였으며 성경읽기, 금식, 중간고사 성적 올리기, 달란트 개발하기 등 4개월의 시간을 마음 다해 준비하였다.

드디어 5월 7일과 14일, 학생주일학교 중등부와 고등부, 전국 지교회 학생들이 기도처를 방문했다. 이 목사는 입구에서부터 일일이 악수하며 반겨주었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기관별로 기념사진 촬영도 함께 하는 등 더없이 행복한 추억을 선사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음껏 운동도 하며 천국의 행복을 마음속으로 그려냈다. 기도처에 다녀온 학생들은 아직도 그 날의 여운으로 행복해한다.

김선진 형제(고2)는 “학생들을 향한 당회장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니 이제 싸우지 않고 욕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틈만 나면 싸웠는데, 이제는 싸우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내니 선생님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며 매우 좋아하시더라고요.”라고 간증했다. 임선주 자매(대전, 고2)는 “기도처에 다녀온 후로 그 사랑이 생각나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리게 되었어요.”라고 고백했다.

고등부 연합회장 김시은 형제(고3)는 “행사 준비로 예전보다 많이 공부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집중하여 공부하도록 도와주셔서 중간고사에서 전교 1등을 했어요.” 이진, 이현 쌍둥이 자매(고1)는 “당회장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 각 반에서 둘 다 1등을 했어요.”라며 방긋 웃었다.

박성재 형제(중2)는 “축구를 하다가 꼬리뼈를 다쳐서 전지 6주 진단이 나왔지만 그날 당회장님과 사진을 찍고 치료받기를 소원하

며 믿음으로 악수했더니 신속히 치료되었습니다.”라고 간증했다.

이러한 자녀들의 변화에 학부모들도 은혜의 간증이 넘쳤다. 송희경 집사(39세)는 “아들 영재(중3)가 기도처에 다녀온 후 게임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아이로 바뀌어서 너무 감사해요. 당회장님을 통해 자녀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되었어요.”라고 했다.

학생주일학교 교장 이재정 전도사는 “내가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가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힘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시는 당회장님의 사랑에 많은 학생이 변화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가 되었고, 교장으로서는 영적인 사랑을 배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의 넘치는 사랑 안에 성장한 만민의 학생들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며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로 만민을 깨워 나가길 기대한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요한복음 19:23~24)

예수님의 겹옷과 속옷에 담긴 섭리

오물보다 더 추하고 부끄러운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죄 가운데 살다보니 죄에 대해 무감각해졌지요. 그러나 빛이 비추면 더러운 것이 드러나듯이 빛이신 하나님 말씀이 마음을 비추면,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세상 더러움에 젖어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자신의 더러운 마음과 행실이 날날이 드러나므로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와 능욕을 대신 감당하셨으므로 이를 믿는 우리는 죄인이 당하게 될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 중심에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신속히 온전한 성결을 이룸으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2. 예수님 겹옷을 네 깃으로 나눈 섭리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겹옷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요, 그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겹옷을 네 깃으로 나누었으니 옷의 형체가 없어지고 천 조각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하여 그 형체가 없어지며, 옷의 천 조각만 남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이름만 남게 됨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겹옷을 나눈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군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며, 네 깃으로 나눈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 곧 동서남북 세계로 뿔뿔이 흩어질 것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19장 43~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예언하셨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은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해 완전히 훼파되어 성전을 이룬 돌들까지도 다

흩어져버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함락 과정에서 백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해당했으며 살아남은 사람들도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면서 이방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겪은 가장 처참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정권에 의한 학살입니다.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별거벗긴 채 죽임을 당하였지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으므로 그 후손에게 임한 저주 중의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처형시키고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마 27:25) 고백했고 그대로 보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혹독한 고난의 역사를 남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겹옷을 넷으로 찢은 사건 안에 예표된 것입니다.

3. 예수님 속옷을 제비뽑은 섭리

예수님의 속옷은 호지 않고, 곧 여러 개의 천을 바느질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속옷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예수님의 속옷은 이스라엘 후손들의 마음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나타내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시조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그의 열두 아들로 이스라엘 나라의 열두 지파를 형성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세월 동안 다른 민족과 통혼하지 않고 단일 민족으로 이어졌으며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겨 왔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내분이 일어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과 통혼하여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잃어버렸지요. 남유다만이 참 이스라엘의 후손으로서 이방인과 섞이지 않은 단일 민족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손을 유다 사람, 곧 유대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옷이 위로부터 하나로 짜내려온 것처럼, 유대인들은 야곱으로부터 계

속하여 순수한 단일 민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찢지 않은 것이지요. 이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 중심을 결코 사람이 나누거나 없애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이후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고난을 당하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1948년 5월 14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 독립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서 38장 8~9절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민족이 심한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도 민족성과 고유한 신앙을 지켜 멸망한 지 약 19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으로부터 물려받은 백성의 마음 중심과 신앙이 그만큼 굳건했으며, 위로부터 짠 예수님의 속옷이 그대로 보존된 것이 바로 이러한 역사를 미리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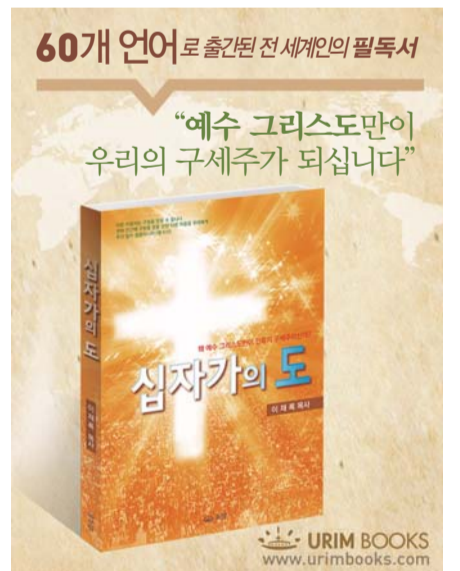
이처럼 예루살렘의 함락이나 유대인들의 고난, 이스라엘의 멸망과 재건 등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며 신속히 신부단장을 마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겹옷과 속옷을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겹옷과 속옷에 담긴 섭리는 무엇일까요?

1. 겹옷과 속옷을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시고 처형장소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마침내 언덕 위에 도착하자 군병들에 의해 겹옷과 속옷을 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리셨지요. 이는 시편 22편 18절에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아이다” 한 예언이 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옷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옷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존귀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미천한 피조물인 사람들 앞에서 별거벗은 수치를 당하신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조롱과 멸시 천대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이지요.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찬양예배 [아동부]	3: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장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는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조건 세 가지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으니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한다. 믿음으로 응답받기 위한 영적인 조건 3가지를 살펴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아야 한다

●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응답해 주시는 참 믿음, 곧 영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육적인 믿음이 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어서 지식적으로 아는 말씀은 머리로만 알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 이러한 믿음은 응답을 가져오지 못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내려 주시는 영적인 믿음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의 역할을 할 뿐이다. 행함이 따르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야 응답받을 수 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지붕을 뜯어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임으로 믿음의 받침대를 든든히 세워 놓아야 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함은 물론, 금식이 주관되면 금식을 하고, 때론 철야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다.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전도, 봉사, 섬김, 구제 등 성령이 주관하시는 대로 선행을 해야 한다. 즉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 놓을 때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초적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지식적인 믿음을 발판 삼아 스스로 나올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고를 당하거나 중한 질병에 걸려 기도받으러 나오는 경우라면, 최소한의 계명 곧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를 지키는 행함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므로(약 2:26)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둘!

죄의 답이 없어야 한다

● 사람 편에서 믿음의 받침대를 준비해도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답이 있으면 응답받을 수 없고(사 59:1~2),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려 해도 받침대가 흔들리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심으로 우리에게 질병의 원인인 죄의 답이 먼저 털어져야 응답받을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계신다(막 2:5).

죄의 답이 있는 사람에게 사단은 의심의 생각, 육신의 생각을 떠오르게 하여 응답에 대한 의심을 갖게 하고 지식적인 믿음마저 잃게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들었던 간증이나 자신의 체험까

지 우연의 일치로 여기게 된다. 이처럼 죄의 답이 있으면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믿음의 받침대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니 결국 응답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답이 없어야 한다. 혹여라도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여 낙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기억하지도 않고 모든 죄를 사해주시기 때문이다(요일 1:7~9).

셋!

하나님께서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 예수님께서서는 듣기에 누운 채 지붕에서 내려진 중풍병자에게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막 2:11). 이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받침대 위에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 즉 영적인 믿음을 엮어주심으로 인해 응답이 임한 것을 말해 준다. 그러자 오랜 세월 중풍을 앓던 사람이 순간에 자기 발로 일어나 침상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갔다.

이처럼 마음에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이 위로부터 임하면 염려나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사라지고 일시에 변화가 온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이다. 응답받았다는 확신은 마음에 염려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참 평안이 임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어떠한 일이든 내 편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의 받침대를 세우되 “나의 믿음 위에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을 엮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금식했으니까.’ 하면서 무턱대고 내 생각과 방법, 계획대로 밀어붙이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믿고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왜 안 되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으면 위로부터 영적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때가 바로 응답의 때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죄의 답이 없음은 물론이요, 믿음의 받침대도 잘 준비돼 있기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바로 바로 역사해 주신다(요일 3:21~22).

한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의 받침대를 혼자만 세워서는 안 된다. 부서의 문제는 부서원 전체가, 교구는 교구 식구가 함께해야 한다. 교회적인 기도제목이라면 교회 전체가 함께 믿음의 받침대를 세워야 응답받을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6. 6.19~ 6.25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찬양 7-13 ■ 선 8
- 지옥 3-7 ■ 의와 인과 신 2
- 공간과 차원 5-7 ■ 신뢰
- 육체의 결여 1-5
- 창세기 강해 56-60
- 1차 영혼육 1-2
- 일곱교회 20-25

GCN TV설교

- 간절함 (아수신 목사)
- 지혜 4 (이미영 목사)
- 막달라 마리아 1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9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6 (신동초 목사)
- 열재앙 21 (정규영 목사)
- 노하기를 더디하는 슬기 (교영아 전도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18
- 일곱달공 어여쁜 율동 57
- 내 마음의 찬양 34
- 창조와 과학 6 ■ English 9
- 모두 드려요 49 ■ 뷰티풀 라이프 10
- 즐거운 요리 18 ■ 흥겨운 소리 5
- 옛날 옛적에 3 ■ 플러리스트 6

해외성회 프로그램

- 에스토니아 연합성회 1
- 믿음으로 걸어온 길 5
- 회상 시즌2 3

GCN TV 채널
kt allehtv 882번



한현숙 권사 (55세, 2대대 15교구)

“참 목자를 만나 영혼이 잘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1987년 결혼 후 직장과 육아, 집안일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서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 저희 부부는 주변에 말씀이 좋은 교회를 찾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김응문 장로)은 이재록 목사의 설교 테이프를 지인에게 받아 듣더니 만민중앙교회 금요철야예배에 참석하자고 하였습니다.

1993년, 교회에 등록한 후 '십자가의 도' 설교를 통해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지 구원의 섭리에 대해 밝히 깨닫고 기사와 표적,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면서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1년쯤 지나 큰딸 진실(당시 6세) 자매가 뇌수막염과 장염에 걸려 뼈만 앙상하였는데 당회장님의 기도로 신속하게 회복되었지요. 수년 후 작은딸 진솔(당시 9세) 자매도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기도로 급성중이염을 치료받는 등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계신 역사가 넘쳤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말씀을 통해 천국 소망이 생기니 구역장, 성가대 등 여러 사명을 맡아 충성하였습니다. 그러던 2010년 12월, 저는 몸을 움직일 때마다 심한 구토증상과 어지럼증으로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초음파검사 결과, 맹장염 자각증상으로 의사는 맹장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니 수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하면

서 감사치 못하고 환경을 탓하며 불평했던 제 모습을 회개하며 당회장님의 자동응답서비스 환자가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믿음으로 마시니 깨끗이 치료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 신앙이 하나님 사랑으로 새롭게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지요.

이후 주일 아침, 가족과 함께 당회장님께 감사 인사를 드릴 때마다 목자의 사랑을 느끼며 변화의 열매로 나올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2014년 여름, 갑자기 왼쪽다리가 붓고 무릎을 굽힐 수 없었습니다. 연골이 심하게 파열되고 물이 찬 상태였지요. 의사는 연골은 한번 찢어지면 재생이 안 된다고 계속 심해질 테니 물리 치료와 수술을 권했습니다. 걸을 수도 없었고 사망 감당도, 집안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미약하고 무능한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신앙생활 하면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깊은 감사를 올려 드렸지요. 그리고 8월 초 만민 하계 수련회 첫날 은사집회 시 기도받은 후 즉시 걷고 계단도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2015년 6월,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했지만 정체돼 있는 제 자신에 대해 궁구하며 큰 깨우침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지혜와 방법,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고 있는 '나'를 비로소 발견한 것입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갇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무언가 뻥 뚫리는 듯 벅찬 감동 속에 헌신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헌신예배 이틀 전, 영의 마음을 이루어주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지요. 할렐루야!

저는 여선교회 일꾼으로, 남편 장로님은 남지역장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큰딸 진실 자매는 찬양사역자로, 작은딸 진솔 자매는 대학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능력 있는 일꾼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 안에서 가장 값진 복을 주신 좋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교회에 다니기 전, 저는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로만 알았기에 삭막하게 느껴지는 삶 속에서 술집과 나이트클럽에 가는 것이 일상이었고, 목표도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2006년 1월, 형이 교회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세운 교회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 따라간 네팔만민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성전이 크고 깨끗했습니다. GCN방송 만민중앙교회 예배 상황을 통해 듣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설교는 항상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천국과 지옥, 죄와 회개에 관한 말씀이 담겨 있었지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니 저는 너무 기뻐했습니다.

2010년 12월 25일,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회장님의 중보기도로 만민의 성도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당회장님께서 사랑하는 양 떼들에게 죄를 경계하며 눈물로 호소하시

는 모습이 단단한 제 마음을 녹였지요. 담임이혜천 목사님도 제게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당회장님의 저서 『십자가의 도』, 『믿음의 분량』, 『천국』(상/하), 『지옥』, 『나의 삶 나의 신앙』(상/하) 등을 읽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게 그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주었고, 간증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와 『나의 삶 나의 신앙』은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 속에 읽었지요.

2011-2012년 송구영신예배 시 산상기도 중 이신 당회장님께서 전화를 통해 성도들에게 '목자의 성'을 불러 주시며 그 마음을 전하셨

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꼭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깊은 사랑에 큰 감동이 되어 그날 저는 아주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 휴대폰과 컴퓨터에 있던 많은 세상 노래 지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찬양하고 천국 소망이 더해지는 '만민찬양'만 들으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꼭조 있는 기도

인 찬양, 아름다운 노랫말로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찬양 라이 집사 (31세, 네팔만민교회)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자백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명3길 1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 구미만민교회 경북 구미시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안대로 409-15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상남로 50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중원빌딩 301호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사로 167-82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잔말길 64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양로 234번길 25-4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7, 2동 3호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 충청만민교회 충청남도 홍성시 공도면 남해안대로 86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역시로 76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 북부지성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7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 안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증리천로 126-7
- 안산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